

# 제6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 이태석 신부와 히포크라테스 정신

일시 : 2016년 6월 2일 (목) 13:00-16:30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 인사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은 제3회 졸업생 고 이태석(李泰錫, 1962-2010) 신부님의 삶을 기리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6월 인제대학교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이태석 신부와 히포크라테스 정신'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오랜 내전으로 인한 참화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위해 남수단의 오지 톤즈에서 만 7년간 의사이자 살레시오회 수도사제로서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한 분입니다. 이러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의사들의 영원한 이상형인 의성(醫聖) 히포크라테스에 비추어 재조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제의대가 국내 의과대학으로는 최초로 고대 그리스어 원문을 한국어로 완역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조형물을 지난 2016년 1월부터 본관 건물 1층 로비에 전시하고 있어 이번 심포지엄은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년의 형식에 변화를 주어 모두 3부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 '이태석 신부에 대한 기억'에서는 이태석 신부님 생전인 과거의 기억과 선종 이후인 현재의 기억이 공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안정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의과대학 동기이기도 한 이태석 신부님의 생전 행적과 신부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신 메시지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의대 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윤현지, 이유진 두 학생이 신부님 선종 이후 한국 사회가 신부님을 어떠한 형태로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2부 '이태석 신부 추모 연주회'에서는 인제의대 관현악단 IJMO(Inje Medical Orchestra)가 신부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 가운데 엄선한 세 곡을 현악 4중주로 들려 드릴 예정입니다. IJMO는 이태석 신부님이 학창 시절 활동하셨던 학교 동아리이기도 하므로 후배 학생들의 이번 연주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3부 '이태석 신부와 히포크라테스 정신'에서는 의성 히포크라테스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이태석 신부님의 의사로서의 삶을 반추함으로써 의(醫)의 한국적인 맥락을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간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선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오신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대한의사학회(大韓醫史學會) 회장 서흥관 선생님과 정암학당 학당장 이기백 선생님을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이기백 선생님은 우리 의대가 전시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원문을 유려한 한국어로 번역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를 위해 먼 걸음을 해 주신 선생님들, 좋은 발표와 연주를 위해 공부 시간을 줄여가며 공을 들인 우리 의학과 학생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의과대학 교직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6월 2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종태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37주년 기념

## 제6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 | 주제 | 이태석 신부와 히포크라테스 정신
- | 일시 | 2016년 6월 2일 (목) 13:00-16:30
- |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 프로그램

#### 13:00 - 13:30

- 개회 및 내빈 소개 ..... 인문외교실 교수 **김택중**
- 인사말 ..... 학장 **이종태**
- 축사 ..... 총장 **차인준**

#### 13:30 - 14:30

##### 1부 이태석 신부에 대한 기억

- 이태석과 우리들 .....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 **안정효**
- 한국사회가 기억하는 이태석 ..... 인제의대 의학과 1학년 **윤현지, 이유진**

#### 14:30 - 15:00

##### 2부 이태석 신부 추모 연주회 (인제의대 관현악단 IJMO)

- 묵상 ..... 작사·작곡 **이태석 신부** / 편곡 **IJMO**
- I Give You Peace ..... 작사·작곡 **이태석 신부** / 편곡 **IJMO**
- Shukuran Baba ..... 작사·작곡 **이태석 신부** / 편곡 **IJMO**

#### 15:00 -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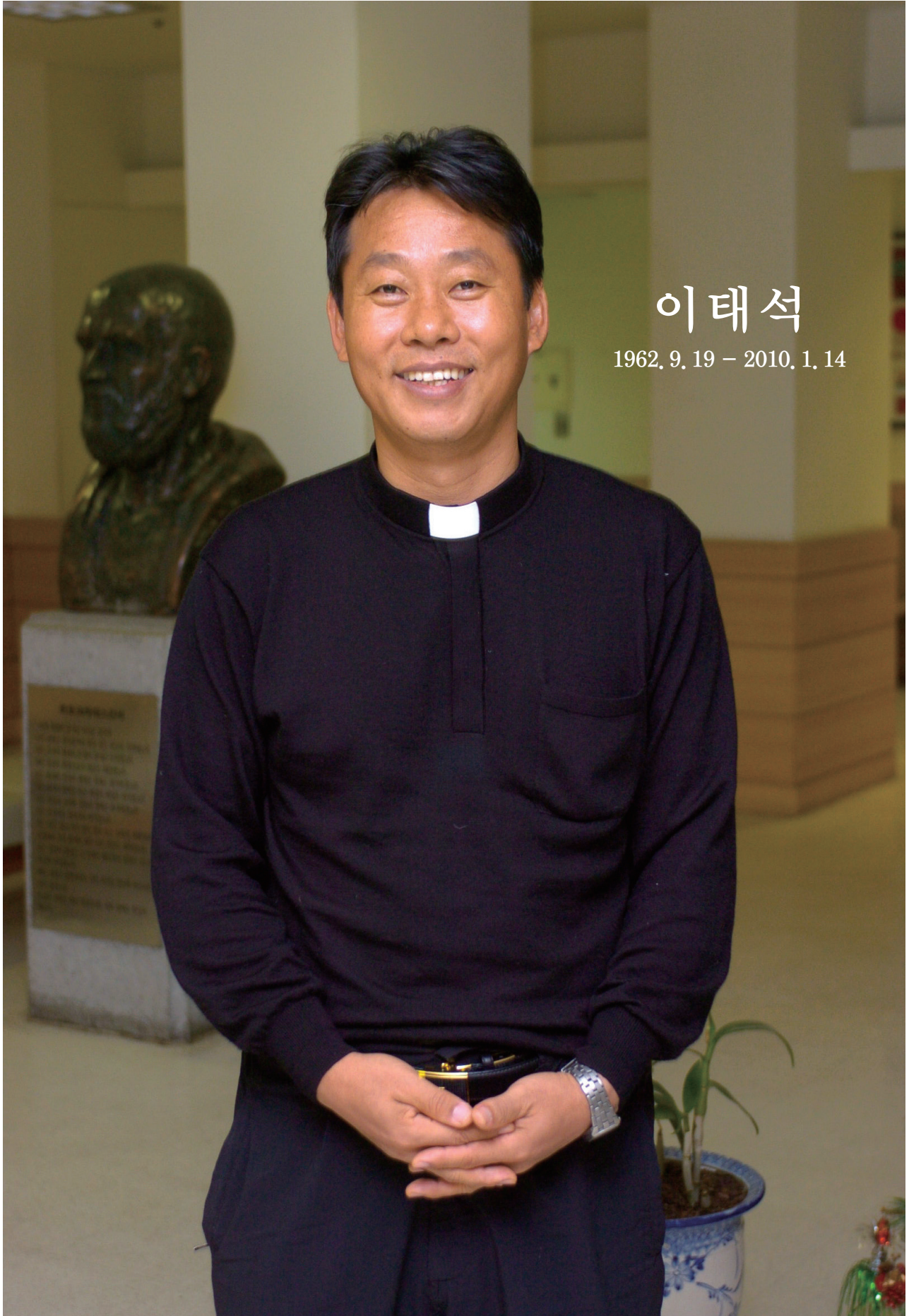
##### 3부 이태석 신부와 히포크라테스 정신

- 히포크라테스, 그 신화와 진실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서홍관**
-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미래 의학 ..... 정암학당 학당장 **이기백**

#### 16:00 - 16:30

폐회, 기념촬영





# 이태석

1962. 9. 19 - 2010. 1. 14



# 이태석

李泰錫, Fr. John Lee Taeseok

의사, 살레시오회 수도사제

1962년 9월 19일 - 2010년 1월 14일

- 1962. 9.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출생
- 1975. 2. 천마초등학교 졸업
- 1978. 2. 부산대신중학교 졸업
- 1981. 2.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81. 3.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1987. 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88. 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 수료
- 1991. 4. 육군 군의관 전역(대위)
- 1991. 8. 살레시오회 입회
- 1994. 1. 살레시오회 첫 서원
- 1995. 1. 서울특별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사목실습
- 1996. 2.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수료
- 1997. 1.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유학
- 1999. 8. 아프리카 남수단 와랍주 톤즈(Tonj) 첫 방문
- 2000. 4. 살레시오회 종신서원
- 2000. 6. 부제 서품,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 졸업
- 2001. 6. 사제 서품
- 2001. 7.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임상연수
- 2001. 12. 남수단 톤즈 부임
- 2003. 12. KBS 1TV「한민족 리포트: 아프리카에서 찾은 행복 - 수단 이태석 신부」방송
- 2006. 1. 후원모임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결성
- 2008. 11. 대장암으로 투병 시작
- 2009. 1. 후원모임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 결성
- 2010. 1. 선종(14일 오전 5시 35분)
- 2010. 1. 전남 담양군 천주교 광주교구 공원묘원 내 성직자·수도자묘역 안장(16일)

## 수 상

- 2005. 11. 제7회 인재인성대상 특별상 수상
- 2007. 3.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
- 2009. 12. 제2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공동 수상
- 2010. 12. 제1회 한국방송공사(KBS) 감동대상 대상 추서
- 2011. 7. 제1회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 저 서

- 2009. 5.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생활성서사)
- 2011. 7. 유고 강론 모음집 「당신의 이름은 사랑」(다른우리)

## 이태석 신부 추모 연주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Inje Medical Orchestra, IJMO)은 공부에 지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음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이를 통해 부족하기 쉬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인성적 자질을 갈고닦기 위해 1981년 3월에 창단하였습니다. 또한 선후배 및 동기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약과 칼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문화적 소양을 지닌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은 이에 머물지 않고, 본 관현악단의 단원이기도 하셨던 이태석 신부님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현악 4중주



바이올린1 정세진  
(의학과 2학년)



바이올린2 김인서  
(의학과 1학년)



비올라 김동욱  
(의학과 1학년)



첼로 오종혁  
(의학과 1학년)







## 연주곡 소개

**목 상** 이태석 신부 작사·작곡, IJMO 편곡 /

이태석 신부님의 대표곡으로 중학교 3학년 즈음 작사·작곡한 곡이다. 1981년 천주교 부산교구 고등부 'Cell & Pop 성가제'에서 송도성당 고등부가 이 노래를 불러 대상을 받으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이태석 신부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가난과 고통, 전쟁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음을 알 수 있다.

**I Give You Peace** 이태석 신부 작사·작곡, IJMO 편곡 /

이태석 신부님이 2003년 작사·작곡한 곡이다. 이 곡은 2003년 남수단 톤즈에서 있었던 청소년 축제 '평화를 주노라'의 주제가로, 남수단 청년들과 함께 신부님이 직접 드럼을 연주하면서 녹음한 음악파일을 기초로 악보화한 것이다.

**Shukuran Baba** 이태석 신부 작사·작곡, IJMO 편곡 /

이태석 신부님이 2005년 작사·작곡한 곡이다. '슈쿠란 바바'는 남수단의 한 부족인 당카족의 언어로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다.

이 곡은 수십 년 동안의 내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수단에서 2005년 남부군과 북부군이 평화 협정을 맺자 신부님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작곡한 것이라 한다.

위의 소개 글은 모두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가 제작·발행한 「이태석 신부 추모 음반 슈쿠란 바바」 해설집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다.





# 이태석과 우리들

## 1. 이태석 신부에 대한 기억들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수료, 군 의관으로 3년간 복무 후 30세에 바로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이후 10년의 수련 기간과 만 7년의 남수단 톤즈 생활 후 49세를 일기로 2010년 1월 선종하였다.

의대 졸업 후 세월이 흘러 동기인 이태석 신부를 찾던 중 내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다친 아이들을 데려오던 한 신부로부터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졸업 후 첫 만남은 이태석 신부가 로마 유학 중이던 2000년에 이르러서였다. 중년의 살찐 모습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아이들과 늘 축구를 하여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케냐 나이로비 선교 체험을 하던 중 10일간 남수단 톤즈를 방문한 뒤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남수단에 가서 평생을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 무척 좋아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2001년 신부가 된 후 첫 미사를 위해 강원도 춘천에 왔을 때 늦게까지 이야기를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다. 왜 수도회에 입회했느냐는 질문에 ‘어려서부터 신부가 되고 싶었으나, 수녀가 되겠다는 누나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반대는 못하고 밤새 우는 모습을 보고 차마 가고 싶은 길을 못 갔지만, 군대 제대 무렵에 이제 의사도 되어 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사제의 길을 가도 될 것 같았다’고 했다.

## 2. 이태석 신부가 보내 온 편지 내용 중에서

“안녕? 나는 아직까지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단다. 12월 6일에 드디어 수단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엄청난 환자들 외에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곳이니 많은 기도 부탁한다. …… 난 이곳에서 내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과 성탄을 맞을 수 있게 되어 성탄의 신비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기도 하고.” (톤즈로 이사하기 전날인 2001년 12월 5일 받은 이메일 중)

“크나큰 욕심은 버리기로 했다. 단지 세상의 남는 것의 1%를 없는 세상으로 연결하는 작은 다리 정도만 되어

보기로 했다. 그리스도교적인 형제적 사랑을 연결해 주는 작은 고리 정도만 되어 보기로 했다.” (톤즈 부임 한 달 후인 2002년 1월 13일 받은 이메일 중)

## 3. 이태석 신부가 우리들과 달랐던 것은?

###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태석 신부는 학창 시절과 짧은 병원 근무 시절을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게 보냈다. 그러나 수도자의 길의 선택과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의 선교사 지원은 보통은 망설이다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었다.

이태석 신부는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산 사제였다. 즉, 다른 관점에서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본 교육을 다 받고 30세에 수도자와 사제의 길을 선택한 후 오랜 공부와 훈련을 통해 착한 본성의 삶이 더욱 발전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선택한 길을 19년을 살았다. 지금도 제2, 제3의 이태석이 많이 있다. 우리들이 이태석 신부뿐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이나 지금 의사인 우리들이 물질보다 정신을,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참다운 의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답으려 노력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 모범이 된 이태석 신부도 있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하면 좋겠다.

정신은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 안정효

인제대 졸업, 내과 전문의  
현 춘천 안정효내과의원 원장  
현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



## 한국사회가 기억하는 이태석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이 배출한 수많은 졸업생 중 이태석 신부님은 단연 후배로서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입니다. 의료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남수단에 가서 배려와 나눔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하였고, 의사뿐만 아니라 교육자, 때로는 이웃의 역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선배님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비단 우리 학교에 한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교내뿐 아니라 교외의 여러 행사들을 찾아보면서 저희의 생각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어느덧 제6회를 맞이한 본 이태석기념심포지엄에서 저희는 이태석 신부님의 후배로서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을 기리는 교내외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선 교내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6회의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제2회 심포지엄과 이태석 신부님 흉상 제막식을 병행하였고, 2015년에는 제5회 심포지엄과 ‘이태석 신부 기념실’ 개실(開室) 및 유품 전람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선종 전 남수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신부님의 제자 토마스 타반 아콧과 존 마옌 루벤 선배가 현재 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우리 학교뿐 아니라 교외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앞으로 선종하시기 전까지 신부님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2010)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15년 다시금 이태석 신부님의 일생을 다루어 주목을 받은 KBS 1TV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에 이르기까지 신부님의 뜻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몸담으셨던 살레시오회는 신부님에 관한 출판물, 뮤지컬, 방송물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 제공과 더불어 내용 감수를 통해 여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신부님의 삶을 많은 이들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생전 신부님의 후원 단체였던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에서도 신부님의 나눔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기적인 감사음악회를 통해 신부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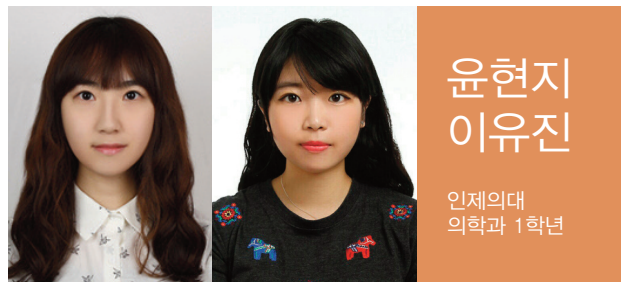
이태석 신부님의 형님이신 끈벙투알 프란치스코회 이태

영 신부님께서 주축이 되어 활동하시는 사단법인 이태석사랑나눔에서는 ‘스마일 톤즈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이태석 의과대학병원 건립 사업, 남수단 마을 재건 사업, 남수단 교육-장학-교류 사업 등을 통해 남수단의 문화, 경제적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을 기점으로 우리 학교와 함께 캄보디아 안면 기형환자 초청 무료수술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이태석 봉사상 시상, 이태석기념청소년아카데미 주최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석 신부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부산의 남부민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에서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에게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그 방법은 다르지만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만큼은 우리 학교뿐 아니라, 위에 열거한 모든 단체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이태석 신부님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학교 후배 입장에서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는 분들과 단체들을 찾아보게 되어 영광이었고, 조사할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웬지 모를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과연 우리가 이처럼 대단한 선배님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문득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해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좋은’ 의사란 자신이 ‘좋은’ 의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포함한 의학과 1학년 동기들 모두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신부님을 떠올리며 ‘좋은’ 의사이자 후배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저희도 분명 ‘good doctor’가 되는 데 성큼 다가서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글을 마칩니다.



## 히포크라테스, 그 신화와 진실

히포크라테스는 서양의학의 시조로 불리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원전 460년경 그리스 코스 섬의 의사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족의 전통으로부터 의학을 배운 것으로 짐작된다. 테살리아의 라리사에서 눈을 감았는데, 아마도 기원전 375-351년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직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실은 1948년 세계의사회가 제정한 제네바 선언이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는 의학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 파나케이아, 그리고 다른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을 나의 증인으로 삼고서 맹세하나니” 라고 시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원문을 이해해야 한다.

놀라운 것은 정작 히포크라테스 자신은 이 선서로 서약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자기 가문 외의 의학생을 받을 때 그 학생들에게 이 선서로 서약을 하도록 명하였다. 선서의 원문에는 그러나 환자의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든지, 독약을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있으며, 자기 능력에 넘칠 경우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겠다는 정신도 담겨 있다. 그는 심지어 노예와 자유인을 크게 차별하지 않았으며 노예라 하더라도 전혀 소홀하지 않고 매일 방문하면서 꼼꼼하게 관찰과 진찰을 하고 기록을 남겼다. 히포크라테스는 또한 재정적 곤란에 처해 있는 외지인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러한 윤리적인 태도만으로 서양의학의 시조라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합리적인 의학을 창시한 사람이다. 인간의 질병을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질병이 생긴 환자에게 신전에 가서 빌도록 말하는 돌팔이나 예언자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는 2500년 전 사람이다. 그의 업적을 평함에 있어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그러나 현대 의료윤리의 기준으로 히포크라테스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들어가서 히포크라테스를 이해한 후 현대 사회로 돌아와 그를 재해석해야만 모든 문제가 명확해질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애가 있는 곳에 의학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히포크라테스와 연결할 때마다 떠올리는 구절이다.



### 서흥관

서울의대 졸업,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현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현 대한의사학회 회장  
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역서 『히포크라테스』(2004) 외 저역서 다수



##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미래 의학

고대 그리스에서 ‘pharmakon’은 약을 뜻하는 동시에 독약을 뜻하기도 한다. 같은 것이 사용하기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약과 아울러 치료의 기술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더 나아가 원리적으로 볼 때,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해롭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치에 따르면 질병을 막는 데 능한 이는 질병을 생기게 하는 데도 능할 수 있다(플라톤, 『국가』 333e). 그래서 의사는 고래로 도덕성이란 짐을 운명처럼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의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선서는 2천여 년 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생명의료윤리의 주요 원칙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더욱이 미래 의학에서도 그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날은 의학을 비롯한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신에게나 가능할 법한, 생명체와 관련한 지적 설계가 이제는 인간에게 가능한 일로 변해가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사이보그 공학의 발전으로 기계를 장착한 사이보그 인간을 만들고, 여기에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까지 더해져 향후 가공할 만한 결과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향후 20-30년이 지나면 의사의 일들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쏟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은 로봇에게 치료받거나 다른 기계(사이보그 인간)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의학적 치료란 자동차의 고장 원인을 찾아 부품 교체하듯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아닌지?

물론 의술이나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어둠만을 드리우리라 예상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나 과학은 앞으로 돌진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여기에서 기술과 윤리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기술은 하나의 명령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나 윤리는 묻는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가?’”(피터 싱어, 『삶과 죽음』, 장동익 역, 36쪽)

의학 발전의 현 추세는 ‘pharmakon’이 그렇듯 양면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하느냐에 달렸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의거해 본다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를 더 이롭게 하는가 여부일 것이다. 그런데 현 추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발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큰 담론거리이다. 그러므로 이 발표에서는 「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래 의학에서 이 선서와 이태석 신부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마도 미래 의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나 이태석 신부의 정신이 더 요청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진단과 치료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른바 왓슨이나 알파고와 같은 로봇에게 맡겨진다면 의사에게 남겨질 일은 무엇이겠는가?



### 이기백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철학박사  
전 연세대학교 의학과 연구강사  
현 정암학당 학당장,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공저 『서양고대철학 1』(2013) 외 저서 다수  
공역 『히포크라테스 선집』(2011) 외 역서 다수

# 이태석의 삶

의사이자 살레시오회 수도사제였던 이태석.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그의 선교지였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Tonj) 마을 사람들은 이태석의 세례명에 성을 덧붙여 그를 '쥘리(John Lee)'라고 불렀다. 20년 넘게 이어진 오랜 내전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톤즈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쥘리 신부는 자상한 아버지와의 같은 존재였다.

이태석은 1962년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부산광역시 남부민동에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4남 6녀 가운데 아홉째로 태어났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놀이터와도 같았던 집 근처의 송도성당을 다니면서 일찍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활발하고 감수성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갔다. 그에게 성장 과정의 가난은 오히려 다른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하는 종교적 자각의 배경이 되었다. 나아가 훗날 톤즈의 가난한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태석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뒤 군의관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그는 안정된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가톨릭 사제가 되는 길을 택했다. 어머니와 가족의 만류를 눈물로 설득한 이태석은 1991년 살레시오회에 입회하고, 이듬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1997년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위해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로 유학을 떠난 이태석은 자신의 선교지를 찾던 중 1999년 여름방학 기간에 당시 전쟁 중이었던 남수단의 톤즈를 최초로 방문하였다. 톤즈의 열악하고 비참한 모습에 크게 놀란 이태석은 이곳에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2001년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된 이태석은 같은 해 12월 처음 결심대로 톤즈로 다시 갔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톤즈에서 차분히 의료와 선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 나갔다.

이태석은 톤즈에서 반경 100 km 내의 유일한 의사였다. 하루에 200명, 많게는 3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그의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한센병 같은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부족간 전쟁으로 총상이나 자상을 입은 환자들도 이태석의 손을 거쳐 갔다. 이태석은 급한 대로 "마른 풀과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움막 같은 집"을 최초의 진료소로 삼았다. 이 초라한 진료소는 2004년 그가 직접 벽돌을 구워 가며 지은 12개의 병실이 있는 시멘트 건물로 발전하였다.

이태석은 살레시오회를 창설한 돈 보스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은 이곳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다. "학교가 없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해 전쟁 중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초·중·고등학교 11년 과정을 차근차근 꾸려 나갔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태석은 학생들에게 손수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여 주고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주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음악반은 훗날 35명으로 구성된 브라스밴드부로 성장하였다.

공식 후원회인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가 결성되고, 톤즈의 의료선교와 학생교육도 본궤도에 올라 한창이던 2008년 11월, 이태석은 건강검진에서 예기치 않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다. 투병 중에도 이태석은 늘 톤즈와 아이들을 잊지 않고 걱정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이태석은 2010년 1월 14일 오전 5시 35분 선종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 이태석은 48세의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향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다.

글: 인제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 김택중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473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TEL: 051-890-6625 FAX: 051-895-1864  
홈페이지: <http://med.inje.ac.kr>